

부산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 방향

부산대학교 교수
이 장 우

*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

- Disclaimer -

본 보고서는 연구자가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부산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규제 방향에 관한 연구자 개인의 학술적 관점의 견해로 작성한 자문보고서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2022.11.21.

연구 책임자: 부산대학교 **이장우** 교수

- 총괄적 제언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정책적 제언들은 큰 틀의 원론적 제안들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학술적-이상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상 아이디어와 제안이, 비록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실제로 성공적인 글로벌금융중심지에서 실행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정책들에 근거한 것들임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진지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상의 제안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컨센서스에 더하여 더 많은 노력과 힘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목전의 무한경쟁과 합종연횡의 글로벌 협업, 광속의 혁신을 생각하면 단기간에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자는 부산금융중심지가 글로벌 랭킹 상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내부혁신과 국가적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2.11.21.

연구 책임자: 부산대학교 **이장우** 교수

목 차

제출문

Disclaimer

총괄적 제언

I. 기존 부산금융중심지 비전 및 전략의 검토

II.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변화 리뷰 및 대응방안

1. 환경변화 키워드: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2. 부산 금융중심지의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환경변화’ 키워드
3. 특화금융 시장의 변화와 최신 금융시장 트렌드 반영의 방향

III. 세계 각국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강점을 고려한 제도 및 규제 방향

1. 글로벌 금융중심지 랭기 현황 및 시사점
2.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뉴욕 및 런던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사례)
3.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홍콩
4.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싱가포르
5.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두바이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산업)
6.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전)

IV. 금융중심지 핵심요소 검토 및 육성적 제도 및 규제 방향

1.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5가지 핵심 요인 분석
2. 2021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3. 2021년도, 도시별 핀테크 경쟁력 순위와 시사점
4. 국가경쟁력 상 금융산업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5. 비전달성을 위한 육성적 금융규제 개선 방향 제언

연구책임자 프로필

I. 기존 부산금융중심지 비전 및 전략의 검토

부산금융중심지 (문현동, BIFC)은 서울 (여의도, IFC)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금융중심지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그 후 수많은 환경변화와 기술혁신,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의 이동으로 부산금융중심지의 전략체계 (비전, 목표,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부산금융중심지 비전 및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동북아 금융중심지를 표방하였으나, 비전이 다소 로컬 지향적인데다 그간의 수많은 환경변화와 기술혁신,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의 이동으로 이제 발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기존 비전, 목표, 전략

〈그림 1〉 기존 비전, 목표, 전략

비전: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 동북아 금융중심지”

“글로벌 新금융 허브 도시, 부산” 조성 (?)

목표(PURPOSE):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

부산금융중심지 6대 추진전략

1 위안화 허브化 등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2 핀테크 등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化

3 해양금융허브化 추진

4 남북경협 금융센터化

5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6 BIFC 입주기관과 연계한 금융생태계 강화



기존 비전, 목표, 전략 검토

비전	✓ 금융중심지 법에 연계되어 퇴색된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 업무범위 탈피 필요 ✓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변화 반영 필요 ✓ 금융중심지 간 업무영역의 붕괴, 융합, 재편 경향 반영 필요
목표	✓ 로컬 중심적인 색채 극복을 위한 재검토 필요
추진전략	✓ 비전 및 목표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추어서 추진전략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변화 리뷰 및 대응방안

부산금융중심지의 바람직한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환경변화를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본 후 부산 금융중심지의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핵심 환경변화 키워드를 뽑아내어 제한하고자 한다.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실물 및 금융 환경 변화의 폭과 깊이는 실로 심대하다 하겠다.

1. 환경변화 키워드: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의 환경변화는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2008년 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데 그것이 자산시장 버블로 나타났고 과도한 유동성이 회수도 채 되기 전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 경기위축에 동반한 2차 유동성 팽창이 부동산 시장을 위시한 자산시장 버블을 가속화 하였으며, 이는 다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급속한 자산가격 조정 및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마켓리스크가 증가하고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STO, NFT, 핀테크, P2P 금융,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Web 3.0 등 레거시 (legacy) 금융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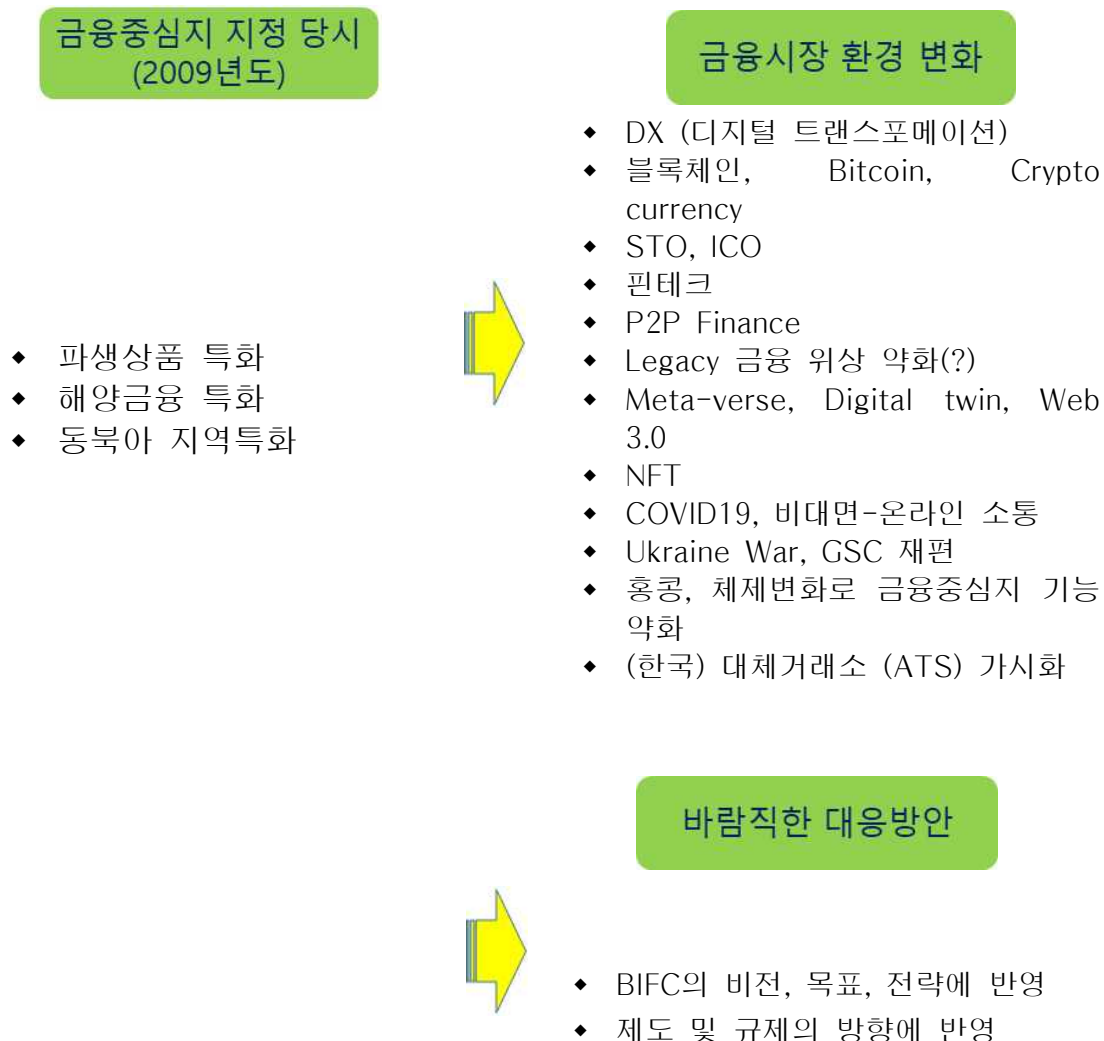
〈그림 2〉 환경변화 키워드: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 Credit Crunch & Doubts about legacy finance ◆ Helicopter Money (quant. easing) ◆ Volatility, Risk Management ◆ Alternative Investments	<COVID19, Y2020~> ◆ Disintegration of global supply chain (resource nationalism) ◆ Corona lockdown, Quarantine nationalism ◆ On-line activities (meetings, commerce) ◆ Further quantitative easing ◆ Asset bubbles (esp. house prices) ◆ Ukraine War
<Financial Environment> ◆ Digital Transformation ◆ Fin-tech, Tech-fin ◆ Digital Assets ◆ Stagflation ◆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 Giant Steps, Ultra Steps ◆ ESG management	<Birth of Innovative Ideas, Finance> ◆ Block Chain, Cryptocurrency, Bitcoin, P2P Finance, ICO, STO, NFT ◆ Meta-verse, Digital twin, Web 3.0

2. 부산 금융중심지의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환경변화’ 키워드

부산금융중심지의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환경변화 상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ICO, STO, P2P 금융, Web 3.0으로의 전환 추세 등은 핫 (hot)한 신개념의 등장은 빼 놓을 수 없는 변화상이다. 현재 진행중인 ATS (대체거래소)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그림 3〉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환경변화 키워드



3. 특화금융 시장의 변화와 최신 금융시장 트렌드 반영의 방향

부산금융중심지는 출범 시 해양-파생상품 특화라는 외형적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다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듯 한 컨셉센스를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후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상을 감안하면 그것에 머무는 것은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금융 선도,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디지털금융, 디지털 신금융의 요람, 금융산업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 등의 가치 및 정책의지를 담아야 하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치 (ATS가 설치되더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사용되고 있는“글로벌 新금융 허브 도시, 부산”조성 같은 개념을 공감력이 강한 비전으로 보인다.

〈그림 4〉 특화금융 시장의 변화와 최신 금융시장 트렌드 반영의 방향

비전: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다음의 가치를 담아야 함**

〈비전의 함의 (예시)〉

- ◆ 신금융 선도
- ◆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 ◆ 디지털금융, 디지털 신금융의 요람
- ◆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치 (ATS가 설치되더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부산에 설치)
- ◆ 금융산업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

목표: 비전에 연동

전략: 비전 및 목표에 연동

III. 세계 각국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강점을 고려한 제도 및 규제 방향

부산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강점을 고려한 제도 및 규제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미 성공한 금융중심지의 핵심적인 정책의 내용 및 특성들을 파악해서 부산금융중심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년 9월 현재 서울, 부산의 GFCI 순위는 각각 11위, 29위로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 3위 △금융산업 발전 9위 △도시평판 7위로 평가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 점은 부산이 지켜보고 구현해야 할 일이다.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사례로 뉴욕 및 런던,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전)의 사례에서 각 금융중심지의 특성 및 핵심정책을 살펴보고 교훈이 될 만한 정책으로부터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다.

각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성공을 이끌어내 특성과 정책들을 적용한다는 것은 언뜻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성공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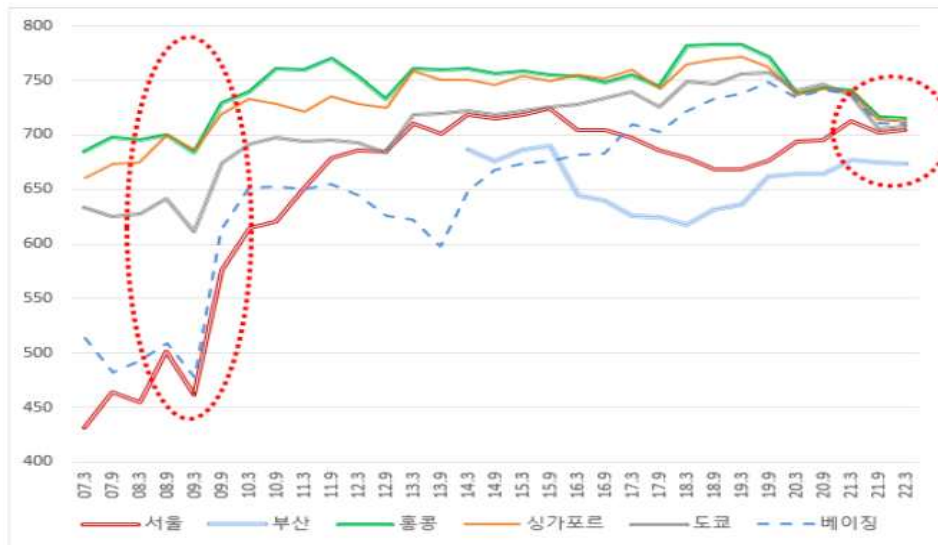
1. 글로벌 금융중심지 랭기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2.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뉴욕 및 런던
3.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홍콩
4.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싱가포르
5.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두바이
6.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전)

1. 글로벌 금융중심지 랭킹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22년 9월 현재 서울, 부산의 GFCI 순위는 각각 11위, 29위로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 (3위), 금융산업 발전 (9위), 도시평판 (7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점은 부산이 지켜보고 가급적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 간섭 정책과 그에 따른 정정불안 등은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기관을 한국 (서울, 부산)으로 유치할 기회임에 분명하나, 아직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그림 5〉 주요국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점수 추이



자료: Z/Yen Group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 (위의 그림은 '22.3월 현재)

- ✓ '22.9월 기준 서울, 부산의 GFCI 순위는 11위 (2단계 상승)와 29위 (1단계 상승)으로 상승 추세
- ✓ 동기간 홍콩, 싱가포르, 도쿄, 베이징 등은 하락 추세

- ◆ 홍콩: 중국과 정치적 갈등 확대 글로벌금융기관 한국 이전 등,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 싱가포르: 지리적 한계
- ◆ 도쿄: 고령화 및 핀테크 혁신의 정체
- ◆ 베이징, 선전 등: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

2.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뉴욕 및 런던

뉴욕과 런던은 지리적, 경제적, 국제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장점을 두루 추고 있으며, 미국의 달러화와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축통화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이 기초자산 시장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을 발달시킨 점, 영국이 선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도입한 것을 보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은 금융혁신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도 신금융 등 금융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부산금융중심지가 영어사용을 소홀히 하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편의 영국 규제샌드박스 정책 참고)

〈그림 6〉 뉴욕과 런던의 금융중심지 성공요인 및 시사점

- ◆ 뉴욕과 런던은 현재 및 과거 글로벌 최강국가의 경제수도로서 금융중심지로 자연스럽게 부상
- ◆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 ◆ 런던은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
- ◆ 영국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선도
- ◆ 뉴욕은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의 급성장과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뉴욕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
- ✓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금의 달러 결제 시스템 확립: 미국 닉슨 정부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거래의 대가였음. 이것이 이른바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체제로, 금본위제를 탈피한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 축임.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 ✓ 영어 사용을 외면하면 국제적 위상 난망
- ✓ BIFC 내 영어 공용어 화 법제화 (영어의 공용어 화에 부응한 업무 시스템 신속 개발 (매뉴얼, 안내자, 안내표지))
- ✓ 규제샌드박스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영국의 사례 참조: 다음 페이지)
- ✓ 실물경제 연계성 (connectivity) 강화 (예시: OPEC 석유 거래대금 중 한국과의 거래 물량에 대해 한화 결제 협상, 한국은 OPEC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시 특혜 부여)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매우 혁신적·성공적 정책이다 연평균 20년 건의 실증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정책을 실험하고 구현한다. 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학자금대출, 집합투자 등 광범위하게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적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없다. 부산금융중심지에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한 예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 ◆ 2015년 10월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하면서 준비된 혁신적인 회사(Innovative Firms)들을 지원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스·전력시장국(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에서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도 추진
- ◆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영국 기업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

<표 1>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실증실험 현황 (7차 모집은 2020.12월 마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신청: 69건 테스트: 18건	신청: 77건 테스트: 24건	신청: 69건 테스트: 18건	신청: 69건 테스트: 29건	신청: 99건 테스트: 29건	신청: 68건 테스트: 22건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계속))

<참고>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표 2〉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기업	회차	제공서비스
BitX	1차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국경 간 송금 서비스
HSBC	1차	FinTech신생기업인Pariti Technologies 와 제휴하여 개발된 앱으로 고객의 재정 관리를 도움.
Beekin	2차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공유를 활용하여 자산(부동산, 엔젤 투자)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자에게 위험 관리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
Economic Data Sciences	3차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투자 선택 과정에서 여러 위험과 목표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균형을 펀드 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
British Heart Foundation	5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 검진 절차를 갖춘 여행보험상품
Funds4Talents	5차	고등 교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대출자의 이전 학업 성과 및 과거 대학 졸업생의 데이터를 평가하여 신용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미래 소득 잠재력을 예측함.
FundAdminChain	6차	집합 투자 펀드를 시작하고 거래하기 위한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설 분산 원장 네트워크로 투자자와 상품 제공 업체가 더 적은 비용으로 마찰을 줄이고 연결·거래·결제를 할 수 있음.

3.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홍콩

홍콩은 입지적 요건 (인접지역 실물경제)과 장기간 자유·개방적 여건 (금융)으로 인해 금융중심지로 크게 성공하였다. 특히 등소평 이래 특구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중국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을 홍콩에서 조달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경제 개발 자금 공급처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적인 국제금융기관들 이 대거 홍콩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직접통치가 가시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

부산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실물경제가 강화되는 잇점을 적극 활용하고 장내·외의 모든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ATS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디지털자산거래소만은 부산에 유치하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홍콩의 금융중심지 성공요인 및 시사점

- ◆ 1940년대 말 중국 內戰으로 상하이로부터 홍콩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 및 금융회사 이동
- ◆ 1960년대까지는 교역관계가 있는 국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금융센터의 역할(sub-regional financial center)
- ◆ 1979년 등소평이 주도한 중국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에 힘입어 광둥 성의 센젠, 주하이로 특구로 지정
- ◆ 특구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중국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을 홍콩에서 조달 → 중국의 경제개발 자금 공급처, 세계적인 국제금융기관들 이 대거 홍콩에 진출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 ✓ 산업은행(KDB)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BIFC를 '개발금융' 특구로 지정 ('60~현재 기간 중 개발 관련 모든 활동 전개)

(부산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오히려' 자산화 해야!)

- ✓ 우리나라에 ATS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만은 부산에! 법제화

4.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역사적 (영국 관련), 지정학적, 역내·외를 망라한 금융활동과 탁월한 네트워크 구축과 인재영입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홍콩의 정정불안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싱가포르가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공을 거두려면 역내·외를 망라한 금융활동 확장과 함께 우수한 금융인재 육성 및 영입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싱가포르의 금융중심지 성공요인 및 시사점

- ◆ 1800년대 중반 영연방의 무역중개지역으로서의 성장 및 해군기지로서 싱가포르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급성장
- ◆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된 이후 금융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부상
- ◆ 역내-역외 금융 분리 수용
- ◆ 국제적인 인재유입 정책 시행으로 우수한 금융인력을 유치
- ◆ 특화된 비자제도 운영: Tech.Pass (우수한 고연봉 기술자를 위한 비자), Enter.Pass (싱가포르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 ◆ 국부펀드인 테마섹도 40%가 외국인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 ✓ 부산항 (북항+신선대)을 국제 비즈니스, 금융, 항공모항 정비 (관광수요가 수반됨), 국제크루즈관광 복합 항구로 육성
- ✓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에 박차
- ✓ 금융네트워크 개선 (capital, labor, regulations 개선)
- ✓ BIFC 내 역외금융 특구 재검토

5.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두바이

두바이, 특히 DIFC는 정부주도로 성공한 금융중심지이다. 두바이는 금융연관비율이 급성장하면서 정부주도의 금융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 현황 및 추이를 보면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을 더욱 고도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실물경제에 못지 않은 잠재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는 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국제적인 법제도 (영국) 도입으로 금융규제자유지역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파격적인 세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두바이의 금융중심지 성공요인 및 시사점

- ◆ 2004년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 주도로 DIFC 건립
- ◆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두바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9.6%에서 2020년 11.8%로 상승
- ◆ 두바이 DIFC 급성장 요인
 - ◆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국제적인 법제도 도입으로 금융규제자유지역 (financial regulation free zone)을 적극적으로 운영 (DIFC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법인세는 입주 후 50년간 0% 적용, 근로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미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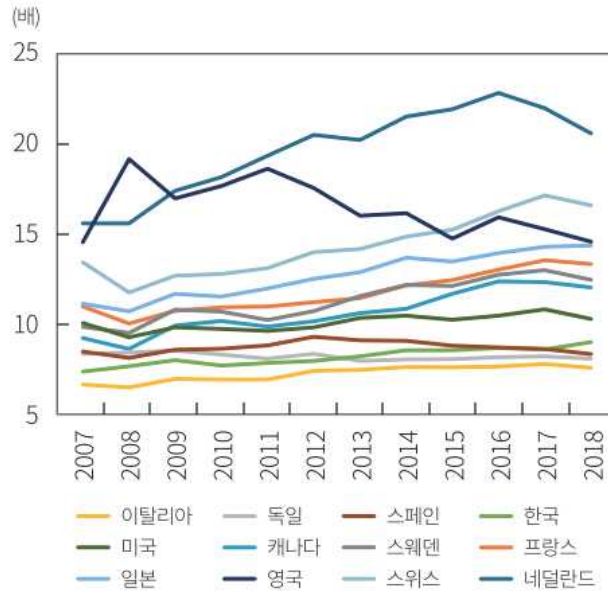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 ✓ 금융은 실물경제의 그림자로 한정해서 인식하기보다는 “네트워크적, 확장적” 특성을 가지는 고급 일자리 산업으로 인식해서 제도 구축 및 규제 시행
 -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 (p.19)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의 고도화 및 재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 국제법(영국 형)이 준용되는 수준의 금융규제자유지역 도입, 획기적인 세제혜택 고려 (두바이 벤치마크)

<참고>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산업

〈그림 10〉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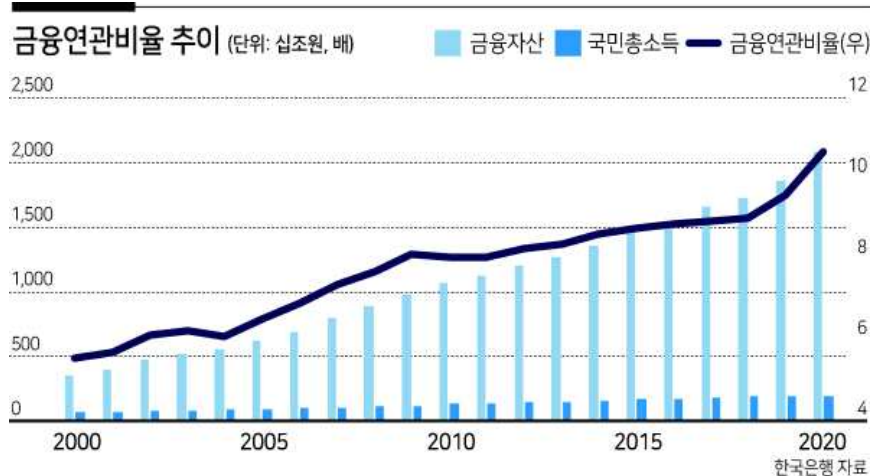


주 : 금융연관비율은 (금융자산 총액/GDP)로 계산

자료: OECD

-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이 2020년, 최초로 10 초과 (10.7),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산업 (금융자산)을 성장시킬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1〉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의 추이



5.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두바이 (계속)

DIFC (두바이)는 사법체계(영국 상법), 금융감독(DFSA), DIFC 진흥청 설립등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되며, DIFC 내 외국인 지분투자 상한 폐지, 현지인 고용의 무 면제, 노조결성 불법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등 경쟁력 있는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산도 이 점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부산금융중심지를 진정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키우고자 한다면 BIFC에 대해 지방세 일부를 국고지원과 매칭하여 재투자 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그림 12〉 홍콩의 금융중심지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계속)

- ◆ 두바이 DIFC 급성장 요인(계속)
 - ◆ 독립적 사법체계(영국 상법), 독립적 금융감독(DFSA), DIFC 진흥청 설립
 - ◆ DIFC 내에서는 외국인 지분투자 상한 폐지
 - ◆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노조결성도 불법
 -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 ◆ DIFC Academy 운영: 세계 유수의 대학, 기관들과 제휴하여 금융대학, 경영 대학, 로스쿨, 미래대학 등 4개 정규과정을 개설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 ✓ 금융중심지특별법 외에 부산금융중심지 특구법(가칭) 제정, 또는 금융중심지특별법 보강 →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감한 입법조치
- (재원확충) 지방세 일부를 국고지원과 매칭 개념으로 재투자
-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제도화
- ✓ 디지털자산, 해양-파생 특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장기간 파격적 투자

6.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사례와 교훈: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전)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선전을 필두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급부상 중인 글로벌 파워 국가이다. 각 금융중심지는 입지적, 정책적 잇점을 안고 도약중이며, 한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전)의 금융중심지 성공요인 및 시사점

◆ 상하이, GFCI 랭킹 3~4위, 2021-22년)

- 중국 현대금융산업의 발상지로 1843년 개통 이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통화의 자유와 좋은 투자환경으로 국내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금융산업 또한 빠르게 발전
-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개방 과정에서 일류 기관과 인재를 지속해서 유치 중. 국제 유명 금융기관들이 상하이에 정착하여, 세계 최고의 금융 인재에 대한 흡인력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현지 양성과 세계 각지에서 끌어온 고급 인재를 상하이 금융업 발전에 전문화된 수요를 제공할 수 있음

◆ (베이징, GFCI 랭킹 5~6위, 2021-22년)

- 금융중심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산업발전 및 대규모 상권 형성이 실현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확대 및 재정수입 증대의 기대 형성
- 이를 통해 경제·금융부문의 세계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분업에 적인 투자 확대를 중국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중국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선전, GFCI 랭킹 5~8위, 2021-22년)

-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선두 주자로서, 강력한 혁신 모멘텀과 분위기로, 해양도시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를 가진 국제도시로 발전. 2016년 기준 하이테크, 금융, 물류, 문화 및 기타 기동 산업의 성장률은 GDP의 63%를 차지했으며,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는 60%에 달하고, 시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은 8,037개로, 5G 기술, 신에너지차, 3D 디스플레이,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분야는 선전의 급속한 발전의 기초가 됨. 선전은 중국의 지원, 발전금융 및 금융혁신의 선구자로 부상.
- 선전은 지리적으로 홍콩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언어·문화적으로 동질감을 형성함. 따라서 홍콩과 깊은 상생관계로 세계 수준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함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 ✓ (상하이) 글로벌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환경(인프라), 투자여건(금융 활동의 자유), 글로벌금융기관 유치, 인재 확보'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책 전개 필요
- ✓ (베이징) 부울경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여 지역의 실물경제를 진작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 금융업의 기반을 강화함
- ✓ (선전) 부산을 해양, 금융,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하이테크, 5G, 수소에너지, 물류,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선도 도시로 육성

IV. 금융중심지 핵심요소 검토 및 육성적 제도 및 규제 방향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도 및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에 무한 투자 (두바이의 DIFC 벤치마크, 독립된 국립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대폭 지원)와 같은 정책적 지원은 미약하며, 고액자산가 정주여건, 글로벌 금융기관 업무여건 창조 (신공항 신속 추진, 도시구조 토털 리엔지니어링 -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계적 명품도시로) 부문은 미흡한 부분이다.

기업환경은 중하의 평가이다. 특구 (또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세제혜택 대폭 강화, 특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구 내 입주 금융기업의 영업환경 대폭 완화 (노동시장, 법인세, 입출국) 할 필요가 있다.

부산금융중심지는 인프라 부분이 여전히 취약하다. BIFC-북항 연계 개발, 부산의 도시구조 토털 리엔지니어링, BIFC 관련 기업의 ESG경영 주도 등을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산금융중심지 평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부산의 문화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부산을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자라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1. 글로벌 금융중심지 발전 5가지 핵심 요인 분석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수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에 장기적 관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고액 자산가의 정주여건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업무여건을 창조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함은 물론 입주 기업들의 영업환경을 매력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대폭 축소 및 폐지도 전향적으로 검토 및 도입해야 하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부산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BIFC-북항 연계개발, 부산의 도시구조 토탈 리엔지니어링, 문화자원 개발로 BIFC의 매력을 높이고 부산을 살고 싶은 도시로 재창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평가항목 개괄 및 비전달성 제도, 규제 방향

금융중심지 평가요소	세부 평가 항목	한국의 경쟁력 평가	육성적 제도 및 규제 반영 방향 (연구자 제안)
인적자본	고학력자 비율, 헨리 여권지수, 구매력 지수, 고액자산가 비중, 헬스케어 지수 등	상	✓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에 무한 투자 (두바이의 DIFC 벤치마크, 독립된 국립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대폭 지원) ✓ 고액자산가 정주여건, 글로벌금융기관 업무여건 창조 (신공항 신속 추진, 도시구조 토탈 리엔지니어링 -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계적 명품도시로)
기업경영 환경	기업환경지수, 부패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경제자유도 지수, 금융안정 지수, 규제강도 등	중하	✓ 특구 (또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세제혜택 대폭 강화, 특구 내 규제 완화 ✓ 특구 내 입주 금융기업의 영업환경 대폭 완화 - 노동시장, 법인세, 입출국 등
금융발전	거래소 시가총액, 증시 거래대금, 회사채 거래규모, 개방형펀드 AUM*, 펀테크지수 등	중상	✓ 상속세 폐지 또는 대폭 감면, 중복과세 축소, 노년상속 배제로 기업가정신 활성화, 대주주의 상속관련저주가 유지 동기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축소 ✓ 디지털자산거래소 설치 총력 (ATS 도입 시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부산에 유치)
인프라	상업용 부동산 가격, 주거비용, 통신발전지수, 교통체증 정도, CO2 배출량 등	중	✓ BIFC-북항 연계 개발 추진 ✓ 부산 도시구조 토탈 리엔지니어링 시도 (인적자본 부분 참조) ✓ BIFC 관련 기업의 ESG경영 주도
평판	IMD경쟁력 지수, 외국인 순투자액, 1인당 GDP, 빅맥 지수, 도시안전성 지수 등	중상	✓ 해외진출 기업 리쇼어링유도 ✓ 문화자원 개발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육성 ✓ 외국인 투자 유치

*AUM: Asset under management (관리자산) - 주로 해외주식에서 운용자금을 뜻함

2. 2021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2)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 대상 64개국 전체 중 23위,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29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하여 IMD 국가경쟁력이 상승 추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효율성 (28위 → 27위), 기업 생산성 (38위 → 31위) 금융시장 효율성 (34위 → 23위), 경영활동 효율성 (36위 → 30위), 고용 (12위 → 5위), 재정 (27위 → 26위), 기본인프라 (20위 → 18위), 보건환경 (31위 → 30위) 등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세정책 (19위 → 25위), 제도여건 (29위 → 30위), 기업여건 (46위 → 49위), 사회여건 등 (31위 → 33위)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정부효율성 (28위 → 34위) 부문이 열악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변화 추이



- IMD 국가경쟁력 상승 (역대 최고치)

<그림 15>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경제성과 (27 → 18)					정부 효율성 (28 → 34)					기업 효율성 (28 → 27)					인프라 (16 → 17)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활동	행태가치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20년	11	41	30	12	48	27	19	29	46	31	38	28	34	36	15	20	13	3	31	27
'21년	5	33	34	5	51	26	25	30	49	33	31	37	23	30	21	18	17	2	30	30

- 기업효율성 및 금융시장 효율성 개선
- 조세정책 및 제도여건 후퇴
- 노동시장 효율성 퇴보

3. 2021년도, 도시별 핀테크 경쟁력 순위와 시사점

2021년도, 세계 주요 도시별 핀테크 경쟁력 순위 변동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3위 하락 (31위)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도시의 핀테크 경쟁력이 악화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13이 급등한 텔 아비브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비교 대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짐작케 한다.

〈표 4〉 2021년도, 세계 주요 도시별 핀테크 경쟁력 순위 변동 현황

순위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순위변화
1위	샌프란시스코	1위	-
2위	런던	2위	-
3위	뉴욕	3위	-
4위	쌍파울로(브라질)	5위	↑1
5위	텔 아비브(이스라엘)	18위	↑13
6위	베를린	9위	↑3
7위	보스턴	8위	↓1
8위	로스앤젤레스	6위	↓2
9위	홍콩	11위	↓2
10위	싱가포르	4위	↓6
11위	시드니	13위	↓2
13위	뉴델리	16위	↓3
17위	베이징	23위	↓6
19위	도쿄	17위	↑2
31위	서울	28위	↓3

자료: Findexable

정책
시사
점

- ✓ 부산은 핀테크 경쟁력 취약
- ✓ 자본 (capital), 전문인력 (labor), 시장 (market & demand)에 대한 구조적 육성정책 강구 필요
- ✓ 부울경메가시티 구상 시 대폭 반영 필요

4. 국가경쟁력 상 금융산업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2022년도, IMD의 국가경쟁력 상 한국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검토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97위)과 규제 (87위)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노동시장의 중복업무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경직성 (102위), 노사관계 (130위), 외국인노동자 개방성 (100) 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2

평가 분야	한국 순위	1순위 국가
• Labor market flexibility	97	Singapore
– Redundancy Cost	116	8개국
– Hiring & Firing Practices	102	HK SAR
–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130	Singapore
– Ease of Hiring Foreign Labor	100	Albania
• Trade openness	67	HK SAR
• Social Capital	78	New Zealand
• Others		
– Burden of Gov't Regulation	87	Singapore
– Gov't policy stability	76	Switzerland
• Domestic Competition		
– Extent of Market Dominance	66	HK SAR
	93	Switzerland
• Critical Thinking in Teaching	82	Finland

정책
시
사
점

- ✓ 노동시장 유연성 매우 취약 극복 노력 필요
- ✓ 규제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government policy stability) 취약 극복 노력 필요

5. 비전달성을 위한 육성적 금융규제 개선 방향 제언

비전달성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효력을 발위하여, 비록 사문화 되더라도 걸림돌로 남아있는 계속규제 방식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 규제, 모든 업무와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지정해서 허가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안 되는 것만 지정해 주는 Negative 규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Negative 규제는 원래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원칙이나 실무자들이 느끼는 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룰 중심의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규제를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방만한 규제보다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중복된 것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스몰 라이선스와 같은 위험 비례 규제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면책제도를 개선하여 금전적 제재를 확대함으로써 인적 제재 중밋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업권 별 규제보다는 기능별 규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표 6〉 비전달성을 위한 육성적 금융규제 개선 방향 예시

■ 계속 규제	➔	✓ 일몰제 규제 적극 도입 (예: 3년 후 자동 폐기)
■ Positive 규제	➔	✓ Negative 규제 (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룰 중심 규제	➔	✓ 원칙 중심 규제 (예: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 방만한 규제	➔	✓ 규제 축소 (예: 규제 폐지 및 통폐합)
■ 총량 규제	➔	✓ 위험 비례 규제 (예: 스몰 라이선스 활성화)
■ 인적 제재 중심 규제	➔	✓ 금전 제재 중심 규제 (예: 면책제도 개선)
■ 금융업권 별 규제	➔	✓ 기능별 규제(예: 업무위탁 활성화)

(참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